

中國語文論叢 第97輯

출토자료를 통해 본 ‘天’의 本義와 변천 연구

朴晟佑·文致雄

中國語文研究會

2020. 2.

출토자료를 통해 본 ‘天’의 本義와 변천 연구

朴晟佑·文致雄*

<목 차>

1. 서론
2. ‘天’의 溯源과 의미 분류
 - 2.1 商代 甲骨文의 ‘天’
 - 2.2 西周 金文의 ‘天’
 - 2.3 春秋戰國 출토문헌의 ‘天’
3. ‘天’의 몇 가지 含義에 대한 검토
4. 결론

1. 서론

문자의 形, 音, 義는 인류 사회와 함께 수없이 발전하면서 본래 의미는 파생되고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결과로 오늘날 문자 本義 해석에 많은 어려운 문제를 주는 동시에 고문 자료 해석에 있어 오류를 초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天’ 또한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글자로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天空(하늘)’으로 풀이하지만 先秦兩漢 시기의 전래 문헌 기록에서는 ‘天皇’, ‘天帝’, ‘天神’, ‘天主’, ‘天王’ 등 인물 관련 칭호로 주로 신성시되는 대상과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天’은 문화적인 요소로 ‘祭天(하늘에 제사를 지냄)’이나 고대의 국가 건국 혹은 통치와 관련되어 절대적인

*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객원교수(주저자 sunswpark@naver.com) · 홍익재단 연구원장(교신저자 cumoon@hanmail.net).

명령의 의미인 ‘天命(하늘의 명령)’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天’은 시대를 달리하며 우리에게 여러 의미로 변화되어 사용 되어 왔다. 그렇다면 ‘天’은 본래 어떠한 의미로 시작되었고 무엇을 지칭하였으며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다시 말해 ‘天’의 本義는 무엇이며 점차 어떠한 뜻으로 발전 되었는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한 ‘天’ 실체의 바른 이해는 고대 역사와 문화 정립의 기본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발표되었던 ‘天’ 관련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天’에 대한 출토 자료와 전래 문헌을 폭 넓게 수집 파악하고, 글자의 形과 義에 대하여 문자학 측면을 출발점으로 분석과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고대 ‘天’의 실체를 바로 이해하고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2. ‘天’의 溯源과 의미 분류

‘天’의 本義 분석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古文字 字形 考釋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 復旦大學의 劉釗는 《古文字構形學》에서 자형 분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古文字를 考釋하는 근본원칙은 ‘形’을 위주로 하며 字形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문자는 形, 音, 義 3요소로 구성되고, 하나의 글자를 식별하는 과정은 오직 形으로부터 音으로, 音으로부터 義에 도달하는 과정이어야 할 수 있을 뿐이다. 形이 첫번째 선결조건이며, 오직 形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비로소 音義의 문제를 논할 수 있다. 形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다면 문제의 반은 해결 됐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形의 해석이 맞지 않다면 音, 義의 풀이는 정확할 수 없다.”¹⁾

1) ‘考釋古文字的一條根本原則，就是以形爲主，從字形出發。文字都具有形、音、義三部分，但辨識一個字的過程，只能是由形至音，由音到義的過程。形是第一位，是先決條件，只有先解決了形，才能談到音義。形的解釋對了，問題就算解決了一大半，而形的解釋錯了，音、義的解釋便不可能對。’ (劉釗 2011: 228-229)